

# 케냐 대선 후 소요사태에 대한 소고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sup>1</sup>

---

<sup>1</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에서 2007년 12월 28일 ~ 2008년 1월 11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와 몸바사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I. 서론



동부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케냐. 우리에게만 사과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로 더 익숙한 이 나라는 1963년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며 ‘아프리카의 모범생’으로 불려온 국가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이동통신산업, 관광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외국 자본과 자원이 케냐의 주요 도시들을 통해 들어오고 운반된다. 우간다, 소말리아와 같은 분쟁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특성상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세계 7대 난민 수용국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정적인 국가 상황을 이유로 수많은 국제기구, 선교단체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아프리카의 허브라고 불린다.

그러나 지난 연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이로 인한 폭동은 케냐의 안정을 신뢰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표면적으로만 케냐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번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표 과정에서 여당의 조작이 있었다는 부정선거의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 세력, 초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종족 간의 깊은 갈등과 분노가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찌 보면 흔한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 주변국가들과 달리 성숙하고 안정된 국가라고 여겼던 케냐였다.

대선이 있는 다음날인 12월 28일 케냐에 도착한 본 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케냐의 변화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변화는 눈 앞에서 진행되었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몸바사의 골목은 불과 며칠 사이에 불 탄 타이어가 나뒹굴고 깨진 병 조각이 굴러다니는 살벌한 곳이 되었고, 유유히 흐르던 인도양과 같이 변함없이 다닐 것 같던 페리는 난리통에 하루 종일 운항을 멈추기도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눈에 띄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정부는 무참히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활기가 넘치던 시장은 두려움 가득한 표정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재기를 하는 삭막한 곳으로 바뀌었다.<sup>2</sup>

이러한 과격한 변화와 갈등의 가운데에서 대선의 원인과 경과에 관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 도대체 이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고민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라는 곳에 온 우리가 지금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진솔한 논의도 눈 앞에 닥친 참혹한 상황에서는 매 순간 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실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케냐 대선 후 소요사태의 발단과 전개 상황, 영향을 소개한 후,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종족갈등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케냐 교회의 현 주소를 짧게 살펴보고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에 대해 케냐 내부의 교회들은 어떤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외부의 선교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도록 하자.

케냐 대선이 있는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명쾌한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믿었던 ‘아프리카의 모범생’ 케냐의 폭력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케냐의 가능성과 복음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케냐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의를 주장하느냐 평화를 주장하느냐를 무론하여 한결같이 케냐를 사랑하고 해결을 갈망하는 내부의 목소리들, 케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국제 사회, 마음을 모아 평화를 기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케냐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들까지, 모두 미래의 좀 더 나은 케냐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

<sup>2</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소속 AFR(Africa Field Research)팀은 케냐 동부 해안에 살고 있는 바준족을 만나기 위해 3주의 기간 동안 케냐를 방문하기로 계획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케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27일 있었던 대선으로 인해 케냐 전역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준족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수도인 나이로비로 돌아와 소요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다. 본 보고서는 약 2주 가량의 케냐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 생각했던 것들을 토대로 설계되었고, 대선 후 한달 여 기간 동안 진행된 일들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II. 본론

### 1) 케냐 소요사태의 발단과 전개

2007년 12월 21일, 아랍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알자지라는 다음과 같은 방송을 내보냈다. “케냐 서부 리프트 밸리 지역 쿠르소 일대는 소수파인 칼린진(Kalenjin) 부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거점도시인 뭉게소엔 다수파인 키쿠유(kikuyu)족<sup>3</sup>이 몰려 있다. 선거를 앞둔 지난 두 달여 동안 이 일대에서만 부족 간 유혈충돌로 27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유혈사태를 피해 피난을 떠났다.”

이것이 대선 발표 후 수백 명의 사망자와 사상자, 수십만의 난민을 발생시킨 유혈사태의 전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시에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치러진 케냐의 대선은 아프리카의 모범생 케냐를 신뢰하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고, 경제적으로도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여겨졌으나 부정선거와 빈부격차로 인한 폭동이 케냐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1963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케냐는 1964년부터 1978년까지 독립운동가이자 케냐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통치 하에 있었다. 1978년 조모 케냐타가 숨진 이후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모이 정권은 1992년부터 다당제를 도입하여 그 해 12월 케냐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총선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 차례의 선거가 있었고 그 때마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속한 부족이 크고 작은 테러를 당하는 정도의 유혈사태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쿠데타와 내전이 반복되는 아프리카의 주변 국가들에 비해 케냐는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평가 받는 나라였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2007년 대선 또한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했을 뿐이었다.

대선이 시작될 무렵까지는 이 예상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 했다. 이날 대선과 함께 총선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국내외 언론의 관심과 변화를 꿈꾸는

---

<sup>3</sup> 키쿠유(kikuyu)는 케냐의 최대 부족으로,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사들을 배출하였다.

국민들의 선거열기를 대변하듯 전국적으로 70%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두 후보는 2002년 당선 후 재선에 도전한 국민통합당(PNU)의 ‘므와이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과 최대 야당인 오렌지 민주당(ODM)의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후보였다. 총선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오렌지 민주당이, 43개의 의석을 얻은 국민통합당을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 것이다. 다음날 대선 개표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오렌지 민주당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므와이 키바키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딩가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표는 중단되었고 대선 3일 후 발표된 결과는 뜻밖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3만표 차이로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고, 거의 같은 시간, 키바키 대통령이 있었던 대통령 궁에서는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오딩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선을 ‘충체적인 부정선거’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딩가 후보자의 출신 부족인 루오(Luo) 부족과 오딩가를 지지하는 다른 소수 부족 출신들은 일부 지역에선 키바키 대통령이 속한 부족인 키쿠유(Kikuyu) 부족의 주거지를 불태우고, 가게를 약탈하며 부정 선거에 대한 분노를 거세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로 알려진 나이로비 키베라(Kibera) 지역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약탈 등이 난무한 무법천지가 연출되기 시작했다.



〈그림 II-1〉 몸바사 거리의 현수막.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개표 과정에서 개표방송이 중단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개표함이 사라지기도 한 사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케냐의 선거 위원장 사무엘 키부이투는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The Standard)>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조기에 발표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솔직히 키바키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유혈, 폭력 사태의 범위와 정도는 계속적으로 심각해졌다. 이것은 리프트 벨리 지역의 엘도렛(Eldoret)이라는 시에서 최고조에 달했는데, 루오족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키쿠유 주민들이 약탈을 피해 몸을 숨긴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50명 이상이 산 채로 불에 타 죽은 것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으로 판명되었다. 엘도렛 신문의 한 리포터는 당시 상황을 “젊은 건장한 한 무리의 남성들이 교회로 다가오더니 키쿠유 부족 출신의 무고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키쿠유 여성과 노인을 보호하려는 소년들이 있었지만 폭도들의 힘에 밀려 이렇다 할 대항을 하지 못했다.”면서 “두려움과 살해당할 가능성을 느낀 키쿠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피신하자 폭도들은 교회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렀다.”라고 서술했다. 목숨을 해치지 않는 한 약탈, 방화 수준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묵인해 오고 있던 중 이러한 대형 ‘학살’은 대선 이후 폭력 사태의 수준을 한 순간에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이것은 곧 이어 각지에서 키쿠유 족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케냐 적십자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 “1월 1일까지만 리프트 벨리 지역에서만 유혈 사태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7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2008년 1월 3일 키바키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대선으로 인한 폭동 사태가 가라앉고 생산적인 일을 할 만큼 정치적 열기가 가라앉는다면, 관련 정당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 “계속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딩가를 지지하는 측에서 열기로 한 어떤 집회나 항의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다음날 오렌지 민주당의 지도자인 오딩가는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알프레드 무투아 정부 대변인은 “법원이 재선거를 명령한다면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재선거의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확실히 하였다.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은 대선 후 10여 일만에 내각 절반을 임명했음을 발표했으나 이 때 키바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각 임명안에는 오딩가 측 야당 지도자계의 인물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라일라 오딩가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의회의 가장 많은 의석 수를 오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딩가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선 후 한달 가량이 지난 지금도 사태는 별 진전이 없는 듯하다. 2008년 1월 16일부터 3일간의 대규모 시위를 열었던 야당측은 더 이상의 시위를 주도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나 폭동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항할 것이라

발표<sup>4</sup> 함으로 사태의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망자가 1000여명이 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부가 없다’ 는 구호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활동가들도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며 개표 과정에서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마땅한 심판을 해야 사태가 종결될 것임에 동의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해결하고 폭력사태를 종식시키라며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건 직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주교가 케냐를 방문하여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고, 열흘쯤 후에는 젠다이 프레이저(Jendi Frazer) 미국 국무부 아프리카 차관보가 케냐에 도착해 즉시 오딩가 후보 측과 만남을 가졌다. 프레이저 차관보는 1차 조사를 마친 후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계속하여 루이스 미첼(Louis Mitchell) 유럽연합(EU) 개발위원회 위원이 양측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건 발생 한달 여 후에 케냐에 방문하여 합의를 추진하였다. 오딩가 후보측은 프레이저 차관보의 방문 다음날인 8일 예정되었던 대규모 시위를 취소하고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하였고,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요청에 24일 가두집회를 취소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중재로 두 지도자가 회담을 가지기도 하는 등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마땅한 타협안이 나오지는 않아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다.

야당의 오딩가 후보조차도 ‘지금 케냐는 무장 병력을 동원,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킬링 필드가 되고 있다’<sup>5</sup>고 경고한 상황에서 케냐는 치안부재, 경제공황 등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고 관광산업이 번창했던 케냐가 대선사태로 최고 10억 달러(약938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당국이 밝혔다. 6 케냐 여행 협회 주석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월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누계 3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피해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케냐는

---

<sup>4</sup> Newsis, 2008년 1월 18일자, ‘오딩가, 시위끝! 다른 형태로 대항할 것’을 참고하였다.

<sup>5</sup> 문화일보, 2008년 1월 18일자, ‘케냐학살 확산... 제 2 킬링필드 우려’를 참고하였다.

<sup>6</sup> SAMBURU, Kenya (CNN) - 이수지(JOINS) 에서 발췌하였다.

외화수입을 올리는 5대 산업 중 관광산업으로 매년 9억 달러(약 8400만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외국 여행객의 90%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여행 외에는 케냐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여파는 관광산업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나이로비 주식거래는 중단됐으며 상점과 식당은 영업을 중단했다. 몸바사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무장세력의 공격을 우려하여 아예 물건을 하역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으로 주요 도로가 폐쇄돼 빵, 옥수수 소맥분, 야채 등 주요식품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수입된 연료가 몸바사 항구에 묶여 있어 차량들 역시 일시적인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sup>7</sup>

이번 사태가 케냐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케냐 최대 신문인 <Daily Nation>은 13일자에서 “2008년 아프리카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 가운데 순 개인 직접투자 자본 460억 달러는 물론 개인 간접투자 자본 150억 달러도 빠져 나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예상치는 국제적 금융조정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 및 자본시장에서 아프리카에 투자한 다른 펀드들은 제외한 자본들만을 대상으로 IMF가 산출한 것이다.<sup>8</sup> 이러한 케냐의 경제적 마비는 이미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 등 주변 국가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르완다의 프로타이스 미탈리 상공업장관은 “소요 사태로 인한 기름 공급 부족 등으로 케냐 동부 해안도시 몸바사에서 중부와 동부 아프리카 국가로 이어지는 공급선이 끊기는 등 악영향을 입고 있다. 지난달 27일 케냐 대선이 실시된 이후 유조차가 르완다에 들어서지 못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sup>9</sup>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뻗어 있는 케냐의 물류 수송길이 막히자 주변국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탄자니아 등은 케냐의 시위 시작 날에 맞춰 공산품 물가가 배 가까이 오르기도 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날 대선 이후 케냐의 정정불안으로 2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10만 여명은 굶주림에 직면해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도 “구호 식량 등을 실은 트럭이 몸바사 항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기아사태를 염려했다. 케냐 적십자사의 존 오테니는 “난민들은 대부분 연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이어서 먹거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폭력사태가 일어난 지역의 다수 병원들은 의약품이 부족하며

---

<sup>7</sup> SAMBURU, Kenya (CNN) - 이수지(JOINS) 에서 발췌하였다.

<sup>8</sup> 헤럴드 경제, 2008년 1월 16일자에서 발췌하였다.

<sup>9</sup> 로이터/뉴시스 2008년 1월 5일자에서 발췌하였다.

<sup>10</sup> 헤럴드 경제 2008년 1월 18일자에서 발췌하였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sup>11</sup>

지금까지 2007년 케냐 대선과정과 그로 인한 의혹, 폭동, 유혈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이로 인한 영향이 케냐 전반에,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어떻게



<그림II-2> 2008년 1월 3일자 현지신문들.  
‘사랑하는 조국을 살리자’ 는 구호를 1면 표지에 실었다.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케냐의 이번 사태는 케냐의 각 도시, 각 마을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아직까지는 명쾌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내부에서 ‘SAVE OUR BELOVED COUNTRY’ 12 을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앞으로의 추이를 관심 있게

## 2) 케냐 대선사태의 이해

### 1) 분석의 필요성

이번 케냐의 대선 후 소요 사태는 집권 권력층의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적 선거의 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요구하며 정치적으로 전개된 이번 사태는 현 정권에 대한 분개가 대통령의 종족인 키쿠유족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종족 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었다. 이는 그 동안 케냐가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sup>11</sup> 경향신문 1월 6일자 기사 ‘케냐 대규모 기아사태 위기...“10만명 즉각 구호 필요” 에서 발췌하였다.

<sup>12</sup> 본 조사팀이 케냐에 방문한 기간이었던 1월 3일과 4일, 모든 신문사들이 연합하여 표지제목을 ‘Save Our Beloved Country’로 구성하고 내부의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던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안정적인 발전상으로 주변 분쟁 국을 중재하고 난민을 받아들여 오던 성숙된 모습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번 사태는 아프리카 사회와 세계에 적잖은 여파를 일으키며, 부정 선거 의혹이라는 정치적 성격에 의해 국제적 중재 요청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되는 점은 케냐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그 갈등 양상에서 종족이라는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가 드러난 것이다. 그 동안 종족간 갈등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지속되는 분쟁의 양상으로서 나타났기에 이번에도 케냐 사태에서 재확인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분쟁은 그 주체를 막론하고, 역사,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잡한 인과 관계로 얽혀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각국의 수준과 상황이 다르기에 보다 심화된 고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이 사태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분쟁으로 접근 하기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케냐와 민주국가로서의 케냐를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오늘날 아프리카는 지속되는 가난과 기아 등의 문제로 인해 이미 구호와 선교적 필요성이 높아 세계의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어온 현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은 기존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인권 유린이나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된 대량 학살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때마다 아프리카의 분쟁사건은 그 실태가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한 충격과 우려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간의 노력과 원조에 대한 재확인보다 근원적인 회복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하였다. 이번 사태 역시 그 파급과 함께, 케냐에 대한 각계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도 먼저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케냐의 내부요소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선교의 관점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먼저는 아프리카 분쟁 원인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케냐의 소요 사태의 이면과 실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가난과 분쟁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 2) 케냐 대선 사태의 원인

### (1) 역사-정치적 원인

1957년 이후 식민주의 열강들의 손에서 아프리카 국가 들이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의 조건하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서구의 그것과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 년 1회의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되었고, 20여명의 대통령 및 수상 등이 살해되면서, 식민 종주국에서 이식해 놓은 서구적 정치 제도들은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당 체제 또는 과두 체제, 독재 체제로 변화했고, 몇 국가의 경우 다당제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 성립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은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세계 극빈 국가의 2/3을 점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케냐는 1992년부터 다당제를 도입하여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꼽혀 왔다. 이번 케냐의 부정 선거 의혹과 유혈 충돌 사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여파가 더해졌다. 또한 충돌 사태와 양상 자체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은 것과 어느 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아프리카 분쟁 양상이 근거했던 내부 요소를 살펴보고, 케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① 식민 통치의 잔재, 국경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상황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와 비교하여, 후진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의 종족 사회의 정치는 전통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에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토론을 통해 대다수의 의견을 점진적으로 수렴하고 개별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엄밀한 점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른 면도 있지만, 민주주의 개념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국가의 개념은 아니지만 수 천년 동안 그들의 환경에 적합한 종족 사회가 구성되어,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정치가 이뤄져 온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제국주의적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 식민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통치는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 내부적인 입장의 이해를 간과한 채 자국중심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선진이란 이름과 자본으로 훼손하였다. 한편 식민지를 통치하는 열강들 간에는 식민지를 더 넓히기 위해 세력 다툼도 벌어졌다. 이들의 다툼은 행정적 편의와 맞물려 아프리카에 ‘국경’이라는 산물을 남겼다. 원래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900-1000여 종족이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자연 분포하여 있었으나, 식민 통치권력에 의해 그들의 거주와 사회 문화적 영향권이 국경이라는 경계선에 제한 받게 된 것이다. 식민화 이전에 자연 발생적 경계와 분포를 이루며 독립성을 유지해온 토착 종족들에게, 이 지도상의 장벽은 이후 국경을 중심으로 국가간 정치적 이권다툼을 낳기도 하고, 국가

내부의 분쟁 시 종족으로 편이 갈라져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낳는 등, 오늘날 발생하는 분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 ② 종족 중심주의(tribalism)와 종족<sup>13</sup> 정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구성되어왔다. 아프리카의 주요 사회형태인 종족 사회도 씨족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종족은 저마다 혈연의 유대와 연합을 바탕으로 타 종족과 적당한 긴장감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 이때의 종족 정체성과 적당한 관계 긴장감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갈등으로 빈번하게 비화되는 부정적 종족 배타성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종족 개념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 식민지의 통치에 있어서 편의적 필요성에 의해 발명되었고, 주로 지배와 저항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4</sup>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특정 종족을 선택하여 지배 계층을 삼았고 이들 종족을 통해 간접 통치를 하였다. 이로서 종족 개념은 보다 사회-정치화되었고, 선택된 종족은 사회의 주요 역할을 통해 주요 이익집단이 되어갔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족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배타성을 높였고, 사회는 보다 경직된 종족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독립 시에도 이어져 식민 통치의 유지를 꾀하던 서구 열강은 다시금 특정 종족을 선택하고 그 종족 내에서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 조정을 하고자 했다. 독립 후 실제적인 통치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는 식민시절 주요 세력이었던 특정 종족이 정권 독점하며 독재자의 양산을 낳았다. 그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은 우간다의 이디아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보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 등이다.<sup>15</sup> 한편 오늘날의 종족 정체성에 대해 식민주의 통치에 따라 농경 사회가 해체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던 아프리카인들이 이를 자신이 속한 부족에서 찾게 되는 경향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

<sup>13</sup> 종족- 케냐의 최대 다수 종족은 기쿠유(Gikuyu) 종족이다. 704만 명으로 중부 고원 지역인 티카와 네리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정, 관, 재계 인사를 다수 배출했다. 케냐타 초대 대통령(1963-1978)과 현 키바키 대통령(2002-)도 기쿠유 종족 출신이다. 기쿠유 종족과 암암리에 경쟁 관계에 있는 루오(Luo) 종족이 있다. 루오족은 416만명으로 빅토리아 호수 인근 서부 평원 지역 키수무 지역에 거주하며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 칼렌진 종족은 384만 명으로 난디(Nandi), 킵시기스(Kipsigis), 케이요(Keiyo), 투겐(Tugen)의 연합으로 되어있다. 중서부 고원 지역인 엘도렛(Eldoret)에 거주하며, 모이 전 대통령(1978-2002)의 출신 집단이다. 루아(Luyia) 종족은 448만 명으로 서부 평원 지역인 카카메가(Kakamega)에 거주하며 인구수에 비해 정치적 세력은 미약하다.

<sup>14</sup>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종족분규-코트디부아르의 남북분단사태를 중심으로 학회지p. 205

<sup>15</sup> [논문]

### ③ 케냐의 정치 상황과 이해

케냐의 경우 그 역사 속에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식민지 역사와 종족 정치 등의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도 몇몇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케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다. 케냐는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탈냉전의 흐름상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것에 비해, 다수 종족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 단체를 만들어 무장 투쟁을 하며 적극적으로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는 영국으로부터 보다 이른 독립을 이뤄 냈다.

이후 독립 투쟁 모임의 주요 종족이자, 케냐 다수 종족인 키쿠유족의 케냐타(kenyatta)의 집권이 이어졌고, 정치적 노선을 걷는 여러 종족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났다. 이후 2대 대통령 모이(Moi)의 5선에 걸친 장기 집권이 있었다. 모이의 집권은 초기 독재정치의 형태였으나 경제 제재 등의 국제 압력으로 이후 2회의 집권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이뤄졌다. 다당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5선 장기집권은 독재와 다름없었지만, 야당 연합은 내부의 다양한 종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대선에 앞서 분열이 잦아, 매번 모이의 어부지리 당선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낸 키바키정권은 모이 정권의 장기간 집권과 부정 부패로 인한 정치 혼란 등을 딛고 케냐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집권 말 부정부패 내막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를 낳았고, 다시금 민주화로의 노력과 기대 선상에서 이번 2007대선이 치러졌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후보는 지난 2002년 정권 교체 때, 여권에 대응하여 한 배를 탔었으나 키바키 정권이 예정과 달리 권력을 독점하면서 갈라서게 되었고, 이번 대선에서 맞대결하게 되었다. 2002년 집권 이후 케냐타가 속한 정당과 키쿠유족의 주도적 국가 운영은 오당가측에 정치적으로도 배반감을 느끼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사회 정치 참여기회가 많이 박탈된 타 부족과 종족들의 불만도 쌓여갔다.

케냐의 종족간 정치 분쟁에 대해 살펴보면, 케냐도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식민 통치 속에서 국경과 배타적 종족 관계 등의 동일한 산물이 발생했다. 더불어 식민 통치와 독립기에 서구 열강이 일부 종족을 통해 간접 통치를 이루며, 정치적으로 종족집단의 권력 독점이 발생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통치 국가였던 영국에 대해 적극적 저항 운동을 펼쳤던 케냐에서는 그 운동권을 형성한 세력들이 주요 권력을 형성하고 독점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운동 세력 결집에 있어서 케냐의 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이 자연히 많이 모이게 되었고, 종족의 혈연 지연은 그 결속력을 높이며 정치세력의 종족성이 강화시켰다.

## (2) 사회 경제적 원인

아프리카의 분쟁 사태는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역사적 정치적 원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바라보면 빈민층의 아픔이 드러난다. 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는 역사적으로 식민지시절 외세에 의한 수탈과, 권력에 의해 정치 경제적으로 구조화되며 발생한 권력독점과 부정부패에 원인을 둘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신식민주의적 자원침탈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앞선 역사 속에서 겪은 내전과 정치적 부패,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빈곤과 분쟁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케냐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수반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교적 민주주의의 도입 및 발전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요 권력이 특정 종족에 편중되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만은 시장 경제체제의 계급적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불평등한 경제 상황 속에서 발현된 갈등이 정치적 분쟁 속에서 약탈 등으로 표출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근대화, 탈 식민시대

아프리카는 1980년대 이전까지 독립과 탈 식민지화를 위한 분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후 탈냉전 시기에 서구 열강이 물러가고 독립이 이뤄지면서 분쟁의 중심사가 국경, 종족, 종교 등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지배층에 의해 임의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각국 내의 종족적,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낳았고, 이는 앞서 본 여러 갈등의 배경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근대화가 보다 가시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민주적 제도와 경제 자유화에 대해 더 기대를 갖기 시작했고, 이는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이 일었다.

근대화에서 민주화는 주요 쟁점이 되어왔는데, 독립 후 서방 선진국들은 경제 원조 조건을 걸고 다당제를 시행을 강권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재자들은 경제력을 위해 제한적이거나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며 민주적 정치로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했다. 더불어 아프리카인들의 시대적인 의식 변화는 민중으로 하여금 민주화를 외치게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에 여전히 방해되는 요소도 이어졌는데, 정치적으로는 권력층의 부패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제도의 실패로 인해

식량폭동이 야기되었고,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남겼다.

한편 독립시기 후 아프리카에서 이뤄진 경제 구조를 보면 대기업과 도, 소매업에 아메리칸인, 유럽인, 아시아인들이 주로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들은 농업과 초보적인 서비스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열강의 자본주의적 진출이었던 반면 아프리카의 문화 자체는 산업 지향적이지 않아서 아프리카인들이 현대 기업에 적당하지 않았다.<sup>16</sup> 이후 아프리카인들이 보다 발전하려 노력할 때에는 이미 백인 정착자들의 자본이 깊이 파고든 식민지의 입장이 되어, 지배 계층의 정치와 경제 협조 정도에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케냐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경제적 인종차별 등을 통한 체계적인 경제적 착취가 있어서 이는 식민지 경제 체제 내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좌절시켜왔다. 이는 사회 계층화와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남기며 독립기를 지나 신식민 자본주의가 다시금 뿌리내렸다. 아프리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발전은 외부의 원조와 투자에 의존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케냐의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독립을 존중한다면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 것이고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② 케냐의 경제 상황

독립후의 케냐는 국제사회로부터 16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받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6%를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케냐인구의 빈곤층이 2007년도에 55%가 되며, 지난 1990년 48%에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 속에서 케냐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케냐 국민 다수가 6% 경제 성장의 열매가 키쿠유족에게만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이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찬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sup>17</sup> 이는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다.

케냐의 이번 상황은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 독립 후 통치 계층의 부와 권력이 소수 세력에 편중된 것에서 기인했다. 이는 초기 대통령들의 장기집권가운데 연고주의와 종족주의로 얼룩진 일부 정치권의 부정적인 부의 축재를 낳았다. 한편의 과도한 획득은 또 다른 이들의 상실을 낳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의 삶 속에는 분노라는 양금이 내려 앉게

<sup>16</sup>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화 정책 비교,

<sup>17</sup> <파이낸셜타임스>

되었다.

특히 2002년 키바키 정권이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경제 성장’의 구호가 서민들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기대와 희망에 부응한 사람이 바로 ODM의 라일라 오딩가였다. 실제로 오딩가 후보를 지칭한 ‘민중의 대통령’ (The People’s president)이란 표어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막상 선거가 개표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대표했던 오딩가의 당선이 키바키 측의 부정 선거로 좌절되자, 그들의 분노는 극단적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로 불리는 나이로비 ‘키베라’ (Kibera) 지역은 이미 키바키 후보와 오딩가 후보 표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개표 후반기로부터 약탈과 방화가 난무한 무법 천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 정권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여겨지는 키쿠유족을 겨냥하여 며칠간 지속된 과격 시위는 키쿠유족 뿐만 아니라, 물류 공급과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거리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 대로 하루 이틀의 시위가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낳아 평화적 투쟁 노선이 불가피한 면도 보이고 있다.

### 3) 케냐 대선사태의 선교적 시사점

#### 1) 케냐 선교 현주소

안정된 정치경제적 상황에 힘입어 수많은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의 본부를 유치한 동부아프리카 중심국 케냐는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AIM(Africa Inland Mission)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두 포함하여 80%에 육박하는 복음화 정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폭동 초기 일주일 만에 2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번 사태는 케냐의 복음화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았다. 긴 역사와 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있지만 케냐의 기독교는 케냐인의 삶과 생각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 모두가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깊이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케냐인들의 영적인 면에서부터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실제적 삶에 적용하려는 현지 교회의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되묻게 되는 때이다.

케냐인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건잡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힘으로 터져 나온 분노의 문제, 해묵은 한의 문제. 이번 대선과정과 그 후의 소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견하게 된 이 문제들은 결코 이번 사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일회성에 그칠 것도 아니라는 심각한 사실에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케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국가로서의 자부심, 선교의 허브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들도 있다.

기존의 케냐 교회의 모습과, 현재 케냐 선교의 영적 상태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드러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지 교회가 케냐인들에게 적용해 왔던 ‘사랑과 용서의 정신’ 이 과연 얼마만큼 실제적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형상’ 으로 회복시켜 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케냐 선교의 측면에 있어서는,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적인 시각으로 그 ‘영혼’ 을 바라보아야 하는 선교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관점이 되짚어 볼 것이다. 이렇게, 본 보고서에서는 케냐에서 직접 겪은 일들과 들은 일들을 종합하여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교회와, 복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케냐를 직접 밟고 기도한 우리들은 케냐에 희망이 있음을 보았다. 외국의 반응과 해결 의지를 보면서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케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케냐를 사랑하는 안팎의 목소리를 듣게 된 기회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케냐에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고, 케냐 사람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는 바이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어 온 ‘성장의 과정’ 임을 충분히 통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진단하여 복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고, 선교사들은 사역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상자들의 본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케냐의 대선사태의 선교적 시사점

### (1) 케냐 교회의 역할 재고

부정 선거 시비로 촉발된 유혈사태로, 케냐 내부에서는 ‘공의와 정의’, 혹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살상과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인륜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혹자는 이번 사태를, 케냐를 비롯한 50여 개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 거치는 필연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참사로 사태가 번져 가는 것을 볼 때, 정치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신앙적 발전까지 꾸준히 이룩해 왔다고 여겨진 케냐에서조차 그 발전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케냐 청년들 가운데 사회적 의식과 신앙적 기초가 제대로 서기도 전에 케냐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듯 국가 성장을 향해 달려온



〈그림 II-3〉 대선이 치러진 몇 주 후, 현지교회의 모습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것처럼 보인다.

앞서 분석한 케냐 대선 사태의 복합적 원인을 통해 짚어보게 된 것은, ‘성장’을 위한, 또는 ‘정의’를 위한 싸움을 구실로 하여 폭발한 그들 내면의 풀리지 않은 분노이다. 악순환 되는 빈곤, 기아와 같은 삶의 억눌림, 오랜 피식민지

역사 속에서 받아온 압제로 인해 점점 더 깊어진 민족적 한(恨)의 문제. 그 뿌리 깊은 절망이 종족 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시 그 기반이 견고하지 못함에도 크게 ‘성장’ 했다고 말해지는 신앙적 측면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말도, 케냐인들에 대한 깊은 내적 치유가 병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깊은 영적 부분까지 다루어야 할 교회의 사역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혀 일부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지는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인간적으로 재정 문제에 금세 부딪혔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타국에서 온 선교사의 경우에도, ‘후원’의 문제에서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 때문에 현지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복음의 내용대로라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빌2:5-8), ‘같이짐의 사랑’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었다면 그것이 결코 표면적이기만 했었을 리 없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참극으로 번져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현지 교회의 사역에 진정한 내적 치유가 병행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내면 상처들이 지금까지도 폭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과 같아지는 사랑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문화에 동화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었고, 억지로 고치려는 시도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 (2) 케냐 선교의 방향 및 선교사의 역할 재고

### ① 케냐 선교의 방향 재고

앞서 대선 사태 일반에 대한 설명 초반에, “선거를 앞둔 두 달여 동안 이 일대에서만 부족 간 유혈충돌로 27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유혈 사태를 피해 피난을 떠났다”는 알 자지라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케냐 내부에서 선거가 일어나기 전부터 유혈 충돌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미리 피난을 떠나는 등의 준비가 있었다. 한

루오족 목회자는 “이번 대선에서 루오족이 이겼더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것” 이라고 하였고<sup>18</sup>, 그의 말에서도 현지인들은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교사나 외국선교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바르게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여러 선교사들은 이번 사태에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이러한 규모의 유혈 충돌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현지 선교사들이 이번 사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체계화된 훈련을 받고 몇 십 년간 현지인들의 문화를 배워 온 선교사들조차도 미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특히 두드러져 나타나는 그러한 ‘예측 불가능함’은 본 항목에서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이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 케냐는 동부아프리카 중심 국가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중 하나라고 여겨져 왔다. 민주 정치의 발전 및 교회 수의 증가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케냐의 앞날을 낙관하게 하였다. 대선을 몇 번 치르면서 점차 성숙해져 가는, 전도유망한 민주 국가로서의 케냐의 모습에서 이번 사태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문화권의 외부인이, 내부인(insider)에 비해 그 문화권의 현상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화(enculturation)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세계관 위에서 사고하며, 행동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다른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 문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 왔던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로서, 새로운 문화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선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요구되는가?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도 다른 문화에서 그 구성원들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는 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 연구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서 좋은 점을 찾고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타 문화에 대한 애정 있는 연구를 통해 피선교자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알 수 있고, 그로부터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

---

<sup>18</sup> 2008년 1월 8일 현지인 O목사님을 인터뷰한 자료에서 편집하였다.

그러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더욱 사랑’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자세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케냐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쉽게 예상하지 못한 대다수 외국인 선교사들의 현실적 상황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타 문화권의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어야 할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관점이다. 특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어떤 시점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지 정확한 미래 상황 예측이 특히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의 경우, 장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깊은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 ② 케냐 선교사의 역할 및 자질 재고

앞서 케냐 선교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포된 분노와 갈등의 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역할로써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본 항목에서는 현지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논의해 볼 것이다. 또,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다.

케냐 내부 정치 지도자들, 또 국제기구나 서구 여러 나라들이 케냐를 위해 ‘중재’ 및 ‘화해 조정’의 시도를 해 왔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시도하는 중재라는 것이 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내부 정치 지도자들 역시 케냐인이므로 뿌리 깊은 종족 간 분노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이렇듯 기존의 중재 방식에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자적 입장의 대안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케냐선교사들이 감당할 역할로 이러한 ‘제 3자적 입장’을 제시하려 한다. 케냐에서 ‘제 3자적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외국인 선교사는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종족이라도 복음의 시각으로 포용할 수 있다. 양 종족이 대립 관계에 있을지라도, 각 종족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양쪽의 이야기에 모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외국인 선교사인 것이다. 즉 근본적인 용서와 화해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균형과 긴장을 지혜롭게 유지해야 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인내심을 요구한다. 또한 끊임없이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역할이므로 전문성도 요구된다.

### (3) 낙관적 전망 -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케냐에 사회적, 신앙적 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곳에 위태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또, 교회와 선교사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도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할 관점과 자질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케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있다.

우선, 케냐의 교계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로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만 들고 찾아가 케냐인들과 삶을 함께하고 더불어 자라 온 현지 교회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으로 돌아간 것은, 오랫동안 복음에 귀가 열려 있었던 케냐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7:13-14)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한 교회의 현지인 목사님께서 대선사태의 상황이 한창 악화될 때 설교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대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케냐 내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단체들이 이 사태를 위해 하나로 연합되어 기도회를 개최했다는 소식<sup>19</sup>은,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케냐 밖에서는, 구호물품 수송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활동에 전심을 쏟고 있는 봉사자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케냐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케냐에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기독교계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제목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 성공회 대주교와 현 가나대통령 등 화해 조정과 중재를 위하여 케냐 주변국 외부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케냐 안팎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개선의 조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케냐인들의 사회적 의식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성장해 온 상태이고 복음 또한 진보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sup>19</sup> 뉴스미션, 2008.1.9

덧붙여, 케냐를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종족 분류’ (Ethnicity)라는 개념은 인종 차별적이라거나, 혹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점’ 이라기보다는 ‘정치 형태’ 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케냐인들 대다수는 종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전히 평화를 갈망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케냐 땅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케냐 대선 이후 종족 간 분쟁의 양상으로 나타난 유혈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짚어 보았고, 그것이 케냐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에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사역의 방향과, 케냐 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를 선교적 관점으로 분석하게 된 것은, 서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급격한 변화와 갈등 가운데 있는 케냐 땅을 밟고 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가 케냐에 머물렀던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진 약 2주간의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기간 또한, 충분한 통찰력과 다양한 시각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가진 편협한 시각들이 더러 드러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일반화한 듯한 부분도 적지 않다. 또 다방면으로 연구 및 공부하지 못하고 일부 인터넷 자료와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해 나간 점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시각으로나마 원인을 분석하고 선교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급격하게 변해 가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렇듯 문서화하는 것은 케냐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작은 노력이다. 또한, 본 보고서가 아프리카 기존 선교의 방향과,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 나갈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기회가 될 것을 소망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갈등 양상에서 ‘종족’이라는,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것은 케냐에서 발생한 유혈사태이지만, 그 복합적인 원인들은 케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은 종족 갈등의 원인과의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역사 정치적으로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종족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 혈연과 지연들이 중심이 된 정치 형태로 인해 정치 세력의 종속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 분개한 빈곤층을 들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의 원인들이 복합되어, 이번 사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며 언젠가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일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여겨진 교회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가 케냐인들에 대한 깊은 내적 치유를 병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선교사가 외부인으로서 한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움도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과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선교사에게 필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내부의 외부인’으로서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제 3자적 입장’으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다. 종족 차원의 문제로 드러나는 케냐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도 짚어보았다.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도 보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고 케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케냐의 교계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되고 있으며, 나라 안팎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다. 케냐인들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